



우택주(침신대)

1. 들어가면서

한국 구약학계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주제로 삼아 학술적으로 논의해 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다.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제안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논의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현상을 지닌 사회'가 되었다는 전제 아래 성서적 논의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1 이 글은 이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혹은 장기 체류하거나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현상을 '다문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보기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겨지고 동시에 우리 문화의 근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 이 말이 등장할 경우는 그대로 둘 것이다.

이해와 포용력 확대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연구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논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성서 활용 방식이다. 성서학계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이슈를 다룰 때면 언제나 해당 이슈의 성서적 근거(들)를 찾아서 그것을 일차원적으로 주석하고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 현상의 경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민이나 이주 현상, 구약성서가 표방하는 이주민 신학,²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객(히브리어, 게르)'이나 '이방인(히브리어, 노크리)'에 대한 용어 연구,³ 그리고 이민이나 이주를 소재로 삼은 기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치중하였다.⁴ 다른 분야에서는 다문화 현상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정책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입법 조항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조언하기도 하였다.⁵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⁶ 따라서 이 현상을 성

2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목회』 31 (2009): 11-46; 김광열, "다문화 가정(이방인)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이해와 접근: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개혁논총』 26 (2013): 65-102; 정중호,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경 해석"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5).

3 왕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여름): 101-21;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집/1 (2004, 6월): 511-525;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집 (2010, 12월): 61-88; 이희학, "역대기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36집 (2010, 6월): 10-29; 한동구, "신명기 개혁 운동에서의 약자 보호 및 나그네 보호," 『구약논단』 45집 (2012, 9월): 10-33;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에 관한 소고-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구약논단』 45집 (2012, 9월): 34-59.

4 최은영, "구약성서의 이주여성들 통해 본 다문화 성서교육," 『한국여성신학』 84집 (2016, 12): 120-143; 김명현,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룻과 나오미"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역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0-163.

5 전경옥 외 6인, "다문화 사회, 한국의 사회통합,"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이길부 역음, 『다문화 사회, 바로 알기』 (서울: 쿰란출판사, 2012);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다문화 사회, 한국』 (파주: 나남, 2009); 천사무엘, "다문화 사회 기독교 학교의 성서교육," 『신학논단』 65집 (2011, 9): 255-276; 김현숙, "다문화주의 담론과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 (2013): 269-297.

6 참고 박성준, "[내 곁의 이방인] 피부색에 색안경, 틀레랑스 없는 한국" (<http://www.hankookilbo.com/v/aa9f3b0c38ae4efe91267ac14038256e>, 2017년 10월 14일 검색). "중국 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인구는 올해 8월 기준 206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5,000만 명의 약 4%에 해당한다. 2007년 100만 명 돌파 이후,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만큼 양적인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제결혼이 흔해졌고, 외국인인과 섞여 일하는 일터도 많아졌다. 방송에서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출연자들도 한국 사회 인식의 글로벌화로 일조하고 있다."

서적으로 재론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현상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논의 방식을 제안하고 시도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구약성서의 답변을 들고자 할 때 성서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성서적 관점을 살필 때 해당 이슈와 관련된 어휘와 출처를 찾아내서 매우 제한된 주석을 수행한 뒤 그 해석을 해당 이슈에 관한 성서적 견해라고 내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우선, 구약성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꺾’(게르)이나 ‘이방인’(노크리) 같은 단어들은 오경의 언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 신명기법전(신 12-26)에 등장한다. 이때 세 가지 법전의 진술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에 멈추고 각 법전을 작성할 때 영향을 준 정치 사회적 현실을 다루지 않으면 그러한 차이점에 관한 진술은 피상적인 상태로 그칠 수밖에 없다.⁷ 그래서 다문화 현상에 관하여 성서적 접근법은 처음부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연구들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 인종, 민족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근대적 개념들을 사용한다. 다문화 현상에 대한 구약성서의 답변을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독특하고 구별된 문화적 표식을 갖고서 구별된 민족의식(ethnicity)을 지니게 되었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민족이나 인종과 같은 주제가 최근의 성서학계에서 심각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7 대표적인 사례를 정중호,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경해석」, 32-50에서 볼 수 있다. 이보다 건전한 성서적 접근법을 보여준 사례는 하경택,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67-72이다. 그러나 이 연구도 성서적 출처를 다루는 방식에서 정중호와 다르지 않다(하경택,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73-77). 또 한동구(「신명기개혁운동」)가 신명기의 꺾을 북 왕국 멸망 이후의 유민이나 유다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예루살렘으로 물러온 유민으로 보지만 앞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패러다임을 따를 경우, 언약법전과 성결법전의 ‘꺾’이 도대체 어떤 시대와 어떤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발생한 이주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희학(「역대기하 30장 25절」)도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특정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인구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구 이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될 수 있으나 그것은 대체로 고대 농경사회에서 항상 벌어지는 자연발생적 사회현상으로 본다.

감안하면⁸ 이와 연관된 다문화 현상 논의는 선불리 다룰 수 없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이 마치 뚜렷이 구별되는 사회적 실체인 것처럼 전제하고 구약성서의 다문화 현상을 논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해석자의 전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성서를 인용하고 풀이하게 될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문화 현상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가리킨다. 이 이슈의 논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고대사회든 현대사회든 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⁹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구약성서를 세 가지 차원, 즉 문학적 차원, 역사적 차원, 신학적 차원에서 살피는 일이다. 구약성서는 글, 역사, 사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므로 각 차원을 다룬 뒤 종합하면 감히 성서적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8 민족(nationality)과 인종(ethnicity)에 관한 연구는 방대하다. 다음을 참고하라. Mario Liverani, "Nationality and Political Identity",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V (New York: Doubleday, 1992), 1031-1037 (with a bibliography); Daniel L. Smith-Christopher, "Nationalism",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228-231 (with a bibliography); Gay L. Byron, "Ethnicity",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350-351 (with a bibliography); Carly L. Crouch, *The Making of Israel: Cultural Diversity in the Southern Levant and the Formation of Ethnic Identity in Deuteronomy* (Leiden: Brill, 2014); Avraham Faust, *Israel's Ethnogenesis: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2006); Ann E. Killebrew, *Biblical Peoples and Ethnicity: an Archaeological Study of Egyptians, Canaanites, Philistines, and Early Israel, 1300-1100 B.C.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5); Dermot A. Nestor, *Cognitive Perspectives on Israelite Identity*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10); E. Pfoh and K. W. Whitelam, *The Politics of Israel's Past and Nation-Building*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3).

9 노크리와 게르를 해석하는 하경택의 연구에서 인용한 독일학자들의 것이 대표적이다. 하경택, 「다문화사회와 대응방안」, 67-72, 각주 11, 14. 특히, 켈러만(D. Kellermann)의 설명 가운데 게르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으로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사회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인구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포로, 이주, 이사, 유목을 하게 된 정착민 등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한다)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고. Gerhard E. Lenski,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289-295; 우택주, 「레위인의 사회적 기원과 제사장 역할의 재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집 (2008), 32-34.

2. 구약성서의 문학적 차원에서 살펴본 다문화 현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이동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헤브론에 정착한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브엘세바에, 야곱은 벧엘에 정착했으며 이후로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기근과 식량 궁핍으로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고센 땅에 정착한다. 이들은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집트 이주민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430년이 지난 뒤(출 12:40) 그들에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집트 군주(바로)에 의해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으로 징발되었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그러던 중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탈출한다. 시내 산에 도착한 이들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다. 아브람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은 함께 탈출한 “수많은 잡족”(출 12:38) 때문에 상당한 규모였다. 시내 산에서 그들은 제도와 조직과 규칙(계명과 법전)을 갖춘 집단이 된다. 이들은 광야를 통과한 뒤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가나안에 정착한다. 또 다시 이주민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분배를 받았다(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야훼를 올바로 섬기지 못해 빈번하게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사사들의 도움으로 평화를 얻지만 사사 제도의 불안정성은 왕정체제의 필요성을 각성시켰다(삿 18:1; 19:1; 20:25).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사사, 즉 지파 지도자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회는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없어서 결국 민의를 좇아 왕이 이끄는 국가를 출범시킨다(삼상 8-11장). 처음에 민심에 부응한 왕정 제도는 근본적으로 왕권이 백성을 혹사하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삼상 8장; 삼하 9장-왕상 11장).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나라는 솔로몬의 폭정에 시달려 결국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뉜다(왕상 12). 남북 왕국은 주변 국제 정세의 흐름에 휘말리다가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남 왕국 유다는 신바빌론 제국에게 차례로 패망한다(왕하 17장과 25장). 패망

한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된다(왕하 25:8-21; 렘 52:28-30; 단 1장).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족속들의 귀환과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한다(대하 36:22-23; 스 1:1-4). 이때부터 유다의 포로민 2세 혹은 3세 중 일부가 조상들의 고향인 예후드로 귀환한다(사 40-55 장; 스 1-6장).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학개 서; 스가라서). 페르시아는 지중해의 그리스와 잦은 전쟁을 벌이는 중에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유다 지방에 파견하여 이 지역의 정치체제를 안정 시키는 조치를 취한다(스 7-10; 느헤미야서).

이와 같은 긴 역사 이야기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구약성서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첫째, 이스라엘의 조상은 갈대아 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창세기는 이들이 처음에 소규모의 가족이었고 가나안 땅의 주류 사회와는 커다란—사소한 경우는 제외하고—마찰 없이 공존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의 내용은 이집트를 탈출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전부 혹은 일부를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진술한다. 이 두 성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멸절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한다. 아울러 이 시기의 정복이 약속한 대로(출 3:7-8; 34:10-11; 신 7:1-2; 수 1:4) 완성 되지 못했다고 기술하면서도(수 13:1-7) 동시에 이스라엘은 약속한 온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했다고도 단언하기도 한다(수 21:43-45).

둘째,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단일 혈통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아브람과 이집트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집트 사람의 딸과 결혼 하였고(창 25:12-18) 이삭이 낳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창 36장). 그러나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혈통과 구분되는 종족이 된다. 한편,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은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였는지 또 원래의 혈통을 얼마큼 순수하게 보존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열두 아들이 상징하는 열두 지파의 존재

가 곧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들의 혈통과 그 순수성 이슈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열두 지파의 구성원은 누구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딸들이나 아들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명령한다(출 34:16; 신 7:3).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왕이다. 그는 주변 민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이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다(왕상 11:1-8).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페니키아 즉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다(왕상 16:31). 그래서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부정적 사례인 셈이다.

구약성서는 곳곳에서 순수혈통과 상관없는 사례들을 언급한다. 요셉은 이집트의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였고(창 41:45)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가정을 꾸렸으며(출 2:21-22) 심지어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광야 공동체에 불화가 생긴 적도 있다(민 12:1-15). 사사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전부 쫓아내지는 못했다고 보도한다(삿 1:27-36).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서로 다른 혈통이 섞이는 다문화 가정의 존재나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다지 큰 거부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윗의 군대에는 블레셋 사람으로 알려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병들이 있었고(삼하 8:18),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헷 사람이고 다윗의 군대에 속했다(삼하 11:3).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 파견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유다 지방의 제사장이나 평민이 지역민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례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스 9:1-2; 10장; 느 13:23-31).

정리해 보자. 구약성서의 문학적 차원을 살펴본 결과, 구약성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단일혈통 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왔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지향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조건 없는 개방성과 융통성을 의미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비이스라엘 족속들은 야훼 신앙의 수용 여부에 따라 수용과 배척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모압 여인 룯을 보자. 그녀는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결혼하여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된다. 이 경우를 다문화 현상의 좋은 사례로 선택해서 활용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모압 여인인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수용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을 자기도 섬기겠다는 고백(룯 1:16-17)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⁰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나 신명기 법전에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주변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단호하게 배척(신 7:3-4)하는 까닭은 야훼 신앙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다문화 현상을 논할 때 야훼 신앙의 수용과 배척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논하지 않는다면 어떤 논의도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견해로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에서 살펴본 다문화 현상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은 문학적 차원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다문화 현상은 역사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문제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다문화 현상을 논할 때 출발점은 단일 혈통 사회에 다른 민족(다른 나라의 시민)이나 인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입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런데 과연 역사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one nation)이거나 단일 인종(one ethnicity)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인종이나 민족 개념을 성서 사회에 대입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개념들은 근대의 개념(modern concepts)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

10 Yair Zakovitch, "Ruth" in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ith The Apocrypha, Fully Revised Fourth Edition*, Michael D. Coogan,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94 footnote 1.6-19a. 자코비치는 룯의 결단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기를 언급했음을 주목한다.

대 이스라엘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논할 때 현대적 개념의 민족이나 인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아(‘우리’와 ‘그들’)를 구별하는 의식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한 의식은 국가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국가가 없어진 시절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 이전에는 지파 체제(tribalism), 국가에서는 군주체제(monarchism), 국가가 없고 성전 중심으로만 사회가 운영되던 성전 중심의 식민지 체제(temple-centered colonialism)에서는 소속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별로 그리고 체제별로 이런 소속 여부는 구성원 개인의 선택보다 족장, 왕, 제사장들과 같은 지배층의 강요(coercion)나 포섭(inclusion) 그리고 인준(sanction)이 우선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문화 현상에 관한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은 지파 시대, 군주시대, 식민지 시대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첫째, 지파 시대이다. 이 시대와 관련한 역사적 고찰은 이스라엘의 기원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언제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세 가지 고고학 증거가 있다. 하나는 주전 14세기 가나안 땅의 사회적 현실을 엿보게 해 주는 아마르나 문서(the Amarna Letters)이다.¹¹ 여기에는 게젤 왕, 라기스 왕, 세겜 왕, 예루살렘 왕 등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아카드어로 작성하여 보낸 외교 서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주전 14세기의 가나안이 소규모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음을 증거한다.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아피루’(SA.GAZ = apiru 혹은 habiru)들 진압하기 위해 바로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단어가 후대의 히브리인(hebrew)과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용어가 바로 히브리인을 가리킨다고 간주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결과 이 ‘아피루(하비루)’는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 어느 곳

에든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팔레스타인의 히브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피루(하비루)’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일컫는 말(social ethnonym)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기성 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 세력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로서 “모든 히브리인들은 아피루이지만 모든 아피루가 히브리인들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¹²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했을 또 다른 집단은 ‘샤슈’(shashu)이다. 이들은 이집트 비문에 자주 등장하며¹³ 시나이 반도와 남부 팔레스타인의 베두인(목축 유목민)을 가리킨다.

아울러 구약성서의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거나(창 11:31-12:5) 혹은 아람 사람들(신 26:5)이라고 진술한다. 또 그들의 조상은 에돔(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롯과 두 딸)과도 피를 나눈 친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감안하며 초기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 겐 족속, 갈렙 족속, 아말렉 족속 등등과 같은 “수많은 잡족”(출 12:38)을 포함하고 있었다.¹⁴ 다시 말해서 초기 이스라엘은 ‘아피루(하비루)’, ‘샤슈’, ‘수많은 잡족’ 등을 포함한 혼종적 다문화 사회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증거는 주전 1207년 이집트의 바로 메르넵타가 리비아를 격퇴시키고 세운 전승비이다.¹⁵ 이 비문은 메르넵타가 가나안 땅 어딘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을 전멸시켰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비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단어에는 사람을 표기하는 부호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비문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 존재하던 특정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이 훗날 나라를 일구고 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1 참고. William L. Moran (ed. and tr.),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Marvin L. Chaney, “고대 팔레스타인 농민운동과 군주제 이전 이스라엘의 형성,” *농경사회 시대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우택주 외 6인 역* (서울: 한울, 2007), 27-108.

12 Chaney, *윗글*, 54.
 13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4.
 14 참고. Ann E. Killebrew, “The Emergence of Ancient Israel: The Social Boundaries of a ‘Mixed Multitude’ in Canaan,” Aren M. Maeir and Pierre de Miroschedji, (eds), “*I Will Speak the Riddles of Ancient Time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Amihai Mazar on the Occasion of His Sixtieth Birthday*, vol. 2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555-72.
 15 Michael G. Hasel, “*Israel in the Merneptah Stela*” *BASOR* 296 (1994), 45-61; Robert B. Coote, “초기 이스라엘 이해의 새로운 지평,” (정희원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98-121.

마지막 증거는 주거지 증거이다. 주전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앙 팔레스타인 산지에는 이전 시대와 뚜렷이 대비되는 새로운 주거지 군락이 형성되었다.¹⁶ 이 주거지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 대다수가 가나안 저지대의 농민들이거나 촌락들 사이에 존재하던 유목민이 정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¹⁷

이 세 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주전 1300년경 이후로 팔레스타인의 도시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뒤 그리고 메르넵타의 주목을 받았던 1207년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초기 이스라엘’은 지파 사회(tribal society)를 구성하며 살았다. 지파란 국가를 전제할 때만 사용되는 개념이다.¹⁸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로 존재한 사회는 이집트 제국밖에 없다. 이집트 제국은 오랫동안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일어난 히타이트 제국과 여러 차례 전쟁과 협정을 반복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행정적으로 관여해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중앙산지에 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이집트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기의 이스라엘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열두 지파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전통으로 간직하고 지켜 나갔다.¹⁹ 여하튼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지파 연합(a tribal

coalition)의 형태를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전 13세기 팔레스타인 중앙 산지에 새로운 정착지들이 확대된 이면에는 지파 연합의 보호망을 전제할 때 가능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전장치 속에서 인종적 다양성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성장하는 사회였다.

둘째, 군주 시대이다. 초기 이스라엘의 지파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 욕구(삿 9장의 아비멜렉) 혹은 사회적 요구와 함께 왕이 다스리는 군주 국가(a monarchic state)로 변천했다(참고, 삼상 8장). 이 군주 시대는 약 400년 정도 지속된다. 흔히 군주 국가 시대에는 국가체제가 지파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파 조직이 사라지거나 와해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이다. 물론 군주 사회 안에 지파 체제가 얼마나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지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파 정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주들은 항상 지파 체제를 통제해야 했고 때로는 지파 정서에 호소하여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²² 다윗은 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지파 출신의 민병대와 블레셋 용병들을 동시에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했다(삼하 8:15-18; 20:23). 솔로몬이 지파 구분을 무시하고 나눈 열두 행정구역은 그의 또 다른 억압 정치와 더불어 나라를 분열로 이끄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왕상 4:7-19). 또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백성 중 하나인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나봇이 자신의 땅 소유권을 전통적인 세습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기 때문이다(왕상 21:3). 히스기야는 북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브라임과 므낫세, 잇사갈 스블론)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6 Lawrence E.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5. 그가 조사한 중앙 산지의 후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는 23곳이고 철기시대 주거지는 114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에 97곳이 새로운 주거지이다(릿글, 33, 표 1).

17 William G. Dever, *Who Were the Early Israelit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3), 153-89 (농지개혁을 위한 농민이주); I. Finkelstein, "The Rise of Early Israel: Archaeology and Long Term History", S. Ahituv and E. D. Oren, (eds), *The Origin of Early Israel-Current Debate: Biblic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Press, 1998), 7-39 (유목민의 정착); 우택주,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모델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복음과 실천』 46집 (2010, 가을), 9-34 (특히, 25-30) 참조.

18 Robert B. Coote, "Tribalism", P. F. Esler (ed), *Ancient Israel: The Old Testament in its Social Con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40-47.

19 참고, 삿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열 개 지파만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집 (2013), 23.

20 Robert B. Coote, "The Emergence of Israel Again", Jim West and James Crossley, (eds), *History, Politics and the Bible from the Iron Age to the Media Age: Essays in Honor of Keith W. Whitelam* (New York: Bloomsbury T & T Clark, 2017), 20, 28-29.

21 릿글.

22 우택주, "열두 지파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21. 참고, E. J. Van der Steen, *Trib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The Central East Jordan Valley in the Lat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s: A Study of the Sources* (Leuven: Peeters, 2004), 7. "지파는 휴면상태였을지언정 항상 그곳에 존재했으며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남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대하였다(대하 30:1-31:1).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은 지파 정서에 입각하여 열두 지파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상적 비전을 글로 남겼고(겔 48장)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에 묘사된 예수는 지파 전통에 근거하여 열두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종합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이든 이념적이든 언제나 지파 정서나 지파 전통을 꾸준히 유지했다.

셋째, 성전 중심의 식민지 시대이다. 식민 사회는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의 자유만을 보장받았고 정치는 페르시아 총독과 제사장 집단에 의해 유지되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의 후손들은 예후드에 제2 성전을 재건했다. 오직 야훼 신앙으로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포로 후기 사회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시대가 다문화 현상을 배척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페르시아가 파견한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중반에 유다 지역의 귀환 공동체 구성원이 땅의 백성이나 다른 족속들과 통혼하는 일(intermarriage)을 엄중하게 금지하였다(스 10장; 느 13장).²³

룻기를 포함해서²⁴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의 성서 기록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 오직 야훼 신앙의 틀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욥기의 경우가 그렇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며, 엘리바스는 데만 사람이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며,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다. 또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욥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의 출신지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²⁵ 만일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면 그들이 나눈 대화는 말하자

23 이 시기의 통혼 금지에 관하여 우택주, “포로 후기 상황에 비추어 본 민수기의 메시지”, 『복음과 실천』 56집(2015, 가을), 15-42;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서설”, 『구약논단』 73집(2019, 9), 49-73;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집(2018, 6), 37-61 참조.

24 정중호는 룻기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고 그것을 귀환 이주의 이야기로 해석한다(『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경 해석』, 81-176). 그러나 룻기를 나오미 이야기라고 보면 그가 말하는 귀환 이주란 결국 원주민이 고향 땅에 되돌아오는 이야기이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과연 다문화 가정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25 David J. A. Clines, *Job 1-20*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10; 참조, 강철규,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2017, 3), 139-164.

면 일종의 다문화 현실에서 이루어진 신앙 담론이 된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은 고대 이스라엘이 다문화 현상에 관한 입장이 시대별로 조금씩 변천했음을 보여준다. 지파 중심의 초기 이스라엘은 특정 문화나 인종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때이며 안정된 사회적 기틀 마련에 전념하였다. 군주 시대는 지파 사회를 대체하는 사회형태로서 군주가 지파 정서와 구조에 의지하는 통치를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국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시기는 자국 백성을 보호하고 타국 백성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다문화 현상은 군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용과 거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로 군주들은 이런 원칙을 종종 무시했다. 솔로몬과 아합은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포로 후기 성전 중심의 식민지 사회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야훼 신앙을 앞세워 다문화 현상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에서 다문화 현상을 살펴본 결과는 문학적 차원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스라엘 사회는 다문화 현상에 기원을 두고 성립되었으나 군주 시대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이중적 입장을 보여주었고 식민지 시대는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최종 형태는 야훼 신앙을 기준으로 다문화 현상을 판단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야훼 신앙을 수용한 경우는 다문화 현상에 우호적이지만(요셉, 모세, 룻, 욥)²⁶ 야훼 신앙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적대시하고 배척하였다(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²⁷

4. 구약성서의 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본 다문화 현상

신학적 차원에서는 앞의 두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구약성서의 법전을 다루려고 한다. 오경의 법전들은 모두 ‘이방 나그네’(출 22:21; 23:9), ‘거류민’(레

26 허경택,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68.

27 릿글.

19:33; 20:2; 25:6, 35, 47), ‘거류하는 객’(신 14:21, 29; 24:19[나그네], 20[객]; 26:12-13[객])으로 번역된 이주민 이슈를 언급한다. 언약법전(출 20:22-23:33)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실이 작성하였고 일부(22:17-30; 23:1-33)는 히스기야 왕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리고 성결법전(레 17-26장)은 포로기 전기에 제사장집단이,²⁹ 신명기법전(신 12-26장)은 요시아의 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상정된다.³⁰

여로보암(주전 10세기 말), 히스기야(8세기 말), 요시아(7세기 말), 포로기와 이후(6세기 중반 이후)에 작성된 법전들이 모두 이주민 이슈를 다루는 것은 이 이슈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변동이나 전쟁은 인구 이동을 크게 자극했을 것이 분명하다. 북 왕국 초기에는 솔로몬 통치로 피해를 본 주민 일부가 이동했을 수 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이나 북 왕국 몰락 이후 북쪽 주민들의 예루살렘 이주도 있었다. 요시아 시절은 폐지된 지방 성소와 그 주변에서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 포로기와 그 이후에는 조상의 땅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나 지중해와 주변 지역에서 상거래를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³¹ 그러나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때를 포함해서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을 때라도 법전들에 등장하듯 ‘게르’, 즉 타지나 타국에서 이주해 와서 거주하는 낯선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농경 사회의 구성원 일부가 이주하는 일은 농경 사회의 구조에서 보편적이고 흔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³² 중요한 것은 그들이 통치 집단이 통치 목적을 명시하는 법전들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이나 중요한

안건이 된 사람들—그 목적이 통치자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한 것이나 또 다른 목적이든 상관없다—이었다는 사실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대체로 인종과 민족을 현대처럼 철저히 구분하지 않는 사회였다.³³ ‘게르’와 ‘노크리’, 두 용어의 성서적 용례를 고찰해 보면,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용법의 차이가 있는 어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노크리’는 기존사회의 소속 여부(membership)를 기준으로 현지인(現地人)이 아닌 외지인(外地人, outsider)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출신은 확인할 수 없다. 그가 내국인일 수도 외국인일 수도 있다.³⁴ 그의 출신은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헌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장 8절의 ‘노크리’(개역개정, “외국인”)가 반드시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어쩌면 다른 지방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노크리’(“타국인”)는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족속을 엄격히 나누는 신명기의 신학과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노크리’는 외국인 출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노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게르’는 거주지 출신(residence)에 따라 구분한 말로서 현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외지인을 가리킬 수 있다. 그가 만일 다른 지방,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들은 대다수 성서적 출처는 이들을 관대히 대우하라고 가르친다.

신명기 법전의 ‘게르’와 ‘노크리’의 사용법을 살펴보자.

28 Coote, 「여로보암과 혁명의 역사」(우택주/임상국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193-210.

29 참고. I. Knohl, *The Silence of the Sanctuary* (Minneapolis: Fortress, 1995).

30 Coote, 「신명기역사서」(우택주/임상국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1.

31 참고. 존 벌퀴스트,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성서」(우택주 옮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01-202.

32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주 현상을 보여주는 집단이 레위인(혹은 레위 지파)이었을지도 모른다. 참고. 우택주, 「레위인의 사회적 기원과 제사장 역할의 재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집 (2007), 27-47.

33 이 글의 ‘문화적 차원’을 보라. 다윗의 장수 가운데 헷 족속 우리아와 외국인 용병이 있었고 모압 여인 룿이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성서는 이를 배격하지 않는다.

34 David J. 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V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694.

(1) 이방인(노크리)에게는 독촉하러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 하라(신 15:3);

(2) 타국인(노크리)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신 23:20);

(3)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 중에 거류하는 객(게르)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노크리)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신 14:21);

(4) 네 위에 왕을 세우려거든...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노크리)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신 17:15)

이 구절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노크리'를 부정적으로 대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³⁵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2)의 경우, 이스라엘은 '노크리'와 모종의 상거래를 하고 있다. (3)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면서도 '게르'나 '노크리'는 이 조항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의 경우, 고대 사회에서 어느 족속이 왕을 세울 때 타지에서 온 외국인을 왕으로 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런 '노크리'는 일국의 왕을 모실 만큼 정치적 역량이 높고 평가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다. 위 구절들 모두 '노크리'에게 특별한 적개심을 보이거나 배척한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구성원의 내부 단속과 기강확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크리'가 배려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필요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자를 주고받는 사이이며 죽은 고기라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게르'는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한다. '게르'가 '거주하는 타지인'으로서 마을이나 성읍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돌봄을 명시하는 태

도는 구약성서의 일관된 입장이다.³⁶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게르'였고 또 포로기에는 바빌론의 '게르'로 살았다. 사회적 약자인 게르를 돌보라는 명시하는 법전의 구절들은 '상처와 무능력을 구원하는 정의'를 규범적 가치로 가르치는 구약신학과 잘 조화된다.³⁷

5. 나가는 말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속적 과제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방식 즉, 구약성서의 세 가지 차원, 즉 문학적 차원, 역사적 차원, 신학적 차원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구약성서의 응답을 탐구했다. 구약성서의 문학적 차원은 구약성서가 표면적으로는 다문화 현상을 거부하는 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다문화 현상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야훼 신앙을 기준으로 다문화 현상의 수용과 거부를 표명한 사실은 중요한 발견이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은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문화 현상을 배척하지 않았으나 군주 국가 시절은 표면상으로 거절하는 양상으로 바뀐다. 물론 군주들은 예외적이었다. 포로 후기의 식민지 사회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정체성 확립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역사적 차원 역시 야훼 신앙의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다문화 현상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의 신학적 차원은 다문화 현상 속의 사람들에 주목하는 법전을 고찰했다. 법전은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게르'(객, 나그네)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정의와 생명 존중 그리고 평화 추구의 가치를 따라 돌봄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종합하면 구약성서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야훼 신앙을 기준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 현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야훼 신앙을

35 허경택,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73.

36 윗글, 73-77.

37 우택주, 「21세기 한국개신교회를 위한 구약신학」,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48-55.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구성원의 정체성을 혼드는 현상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건너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라면 돌봄의 대상이 된다. 구약성서는 아해 신앙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6.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목회」 31 (2009), 11-46.
- 강철구, "옴의 하나님 이해: 옴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 3), 139-164.
- 김광열, "다문화 가정(이방인)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이해와 접근: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개혁논총」 26 (2013), 65-102.
-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서설", 「구약논단」 73집 (2019, 9), 49-73.
-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집 (2018, 6), 37-61.
-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에 관한 소고-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구약논단」 18/3 (2012), 34-59.
- 김명현,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룻과 나오미",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엠티),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0-163.
- 김은미/양옥경/이혜영, 「다문화 사회, 한국」 (과주: 나남, 2009).
- 김현숙, "다문화주의 담론과 기독교 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 (2013), 269-297.
- 박상준, "[내 곁의 이방인] 피부색에 색안경, 톨레랑스 없는 한국" (<http://www.hankookilbo.com/v/aa9f3b0c38ae4efe91267ac14038256e>,

- 2017년 10월 14일 검색.
- 우택주,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모델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복음과 실천」 46집 (2010, 가을), 9-34.
- _____, "레위인의 사회적 기원과 제사장 역할의 재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집 (2008), 27-47.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집 (2013), 5-36.
- _____, "포로 후기 상황에 비추어 본 민수기의 메시지", 「복음과 실천」 56집 (2015), 15-42.
- _____,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구약신학」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여름), 101-21.
- 이길부(엠티), 「다문화 사회, 바로 알기」 (서울: 쿤란출판사, 2012).
- 전경옥 외 6인, 「다문화 사회, 한국의 사회통합」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3).
- 정용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골로새서의 통전적 읽기와 신학적 주제", 「신학논단」 77집 (2014, 9), 269-296.
- 정중호,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경해석」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집/1(2004, 6), 511-525.
- 천사무엘, "다문화 사회 기독교 학교의 성서 교육", 「신학논단」 65집 (2011, 9), 255-276.
- 최은영, "구약성서의 이주여성을 통해 본 다문화 성서 교육", 「한국여성신학」 84집 (2016, 12), 120-143.
-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집 (2010, 12), 61-88.

- Berquist, Jon L.,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성서」 (우택주 옮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원제는 *Judaism in Persia's Shadow* (Minneapolis: Fortress, 1996).
- Byron, Gay L., "Ethnicity."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350-351.
- Chaney, Marvin L., "고대 팔레스타인 농민운동과 군주제 이전 이스라엘의 형성", (우택주 외 6인 옮김),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서울: 한들, 2007), 27-108.
- _____, "성경에 나타난 성소, 망명지, 피난처", (우택주 외 6인 옮김),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서울: 한들, 2007), 193-207.
- Clines, Davi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V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_____, *Job 1-20*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 Coote, Robert B.,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우택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원제는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81).
- _____, "Tribalism." P. F. Esler (ed), *Ancient Israel: The Old Testament in its Social Con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40-47.
- _____, 「초기 이스라엘 이해의 새로운 지평」, (정희원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 _____, 「신명기역사」 (우택주/임상국 옮김), (파주: 한울엠플러스, 근간), 원제는 *The Deuteronomistic History* (manuscript).
- Crouch, Carly L., *The Making of Israel: Cultural Diversity in the Southern Levant and the Formation of Ethnic Identity in Deuteronomy* (Leiden: Brill, 2014).
- Dever, William G., *Who Were the Early Israelit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3).
- Faust, A., *Israel's Ethnogenesis: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2006).
- Finkelstein, I., "The Rise of Early Israel: Archaeology and Long Term History," S. Ahituv and E. D. Oren (eds), *The Origin of Early Israel-Current Debate: Biblic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Press, 1998), 7-39.
- Hasel, Michael G., "Israel in the Merneptah Stela", *BASOR* 296 (1994), 45-61.
- Knohl, I., *The Silence of the Sanctuary* (Minneapolis: Fortress, 1995).
- Nestor, Dermot A., *Cognitive Perspectives on Israelite Identity*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10).
- Killebrew, Ann E., "The Emergence of Ancient Israel: The Social Boundaries of a 'Mixed Multitude' in Canaan." Aren M. Maeir and Pierre de Miroschedji (eds), "*I Will Speak the Riddles of Ancient Time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Amihai Mazar on the Occasion of His Sixtieth Birthday*, vol. 2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555-572.
- _____, *Biblical Peoples and Ethnicity: an Archaeological Study of Egyptians, Canaanites, Philistines, and Early Israel, 1300-1100 B.C.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5).
- Lenski, Gerhard E.,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 Liverani, Mario, "Nationality and Political Identity," *Anchor Bible Dictionary*, IV (New York: Doubleday, 1992), 1031-1037.

- Moran, William L., (ed. and tr),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Pfoh, E. and K. W. Whitelam, *The Politics of Israel's Past and Nation-Building*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3).
-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Sendel, Michael J.,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서울: 김영사, 2010).
- Smith-Christopher, Daniel L., "Nationalism",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228-231.
- Stager, Lawrence E.,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5.
- Van der Steen, E. J., *Trib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The Central East Jordan Valley in the Lat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s: A Study of the Sources*. (Leuven: Peeters, 2004).

검색어

다문화 현상
게르와 노크리
야훼 신앙
사회적 약자
정체성

The Multicultural Phenomena of the Old Testament in Light of Its Literary, Historical, and Theological Dimensions

Taek Joo Woo,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 new approach to the multicultural phenomena in Korea, not seeking a new solution from the Old Testament perspective. This arose from critiques o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They illustrate insufficient exegesis on the words like ger and nokri, as well as on the narratives of the immigrating people,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society, and the inadequate application of the modern concept to the ancient society. To complement such drawback, this study explores three dimensions of the Old Testament, that is, literary, historical, and theological ones with regard to the multicultural phenomena and synthesizes the results.

Literary and historical dimensions of the Old Testament embrace the multicultural

phenomena under the condition of confessing Yahwism. Ruth is a representative case, and the book of Job is understood as a discourse on Yahwism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illustrates a spectrum from the acceptance of the phenomena to the rejection of it. The Israelites were the descendants of Abraham who came from Chaldea in Mesopotamia. Joseph married with an Egyptian woman, and Moses, with a Midianite woman. After the Exodus, the Israelites did not expel the Canaanites completely, and thus they coexisted with them. King David had foreign mercenaries in the army; Solomon had a marriage of alliance with princess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Ahab married with Jezebel, a Phoenician princess. The colonial era antagonized the multicultural phenomena by ostracizing the intermarriage. It is also due to jeopardizing religious identity. In contrast, Ezra and Nehemiah in the colonial period reformed Yehud as a Persian colony by prohibiting the intermarriage. For it threatened the identity of the true Israel as the community believing Yahweh. Theological dimension focuses on exploring two Hebrew terms, *ger* and *nokri* of the Deuteronomic code in the context. The dates of the legal code show that specific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caused the people to migrate to safer places, but the migration is also considered as a generic trend in the agrarian society. The Deuteronomic code suggests that *ger* as the societal weak are to be taken care of, whereas *nokri* as the possibly affluent people from outside are to be socially distanced from the natives. In sum, the Old Testament teaches that the societal weak are to be taken care of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do not threaten Yahwism.

To discuss the multicultural phenomena is related with how to keep our identity. The more the outsiders in the society, the more fear grows. But the Old Testament teaches the faith community to provide care and support to the societal weak.

Keywords

multicultural phenomena

ger and *nokri*

Yahwism

the societal weak

identity

- 투고일: 2020년 4월 7일
- 심사일: 2020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